



“전쟁 장면을 게임형식으로 만들어 당시 고통을 알기 어려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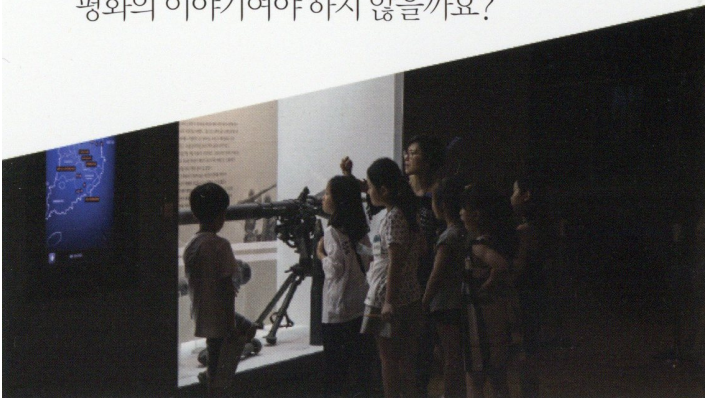
“사람을 죽이는 일은 무서운 일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한다니 이상해요”

“전쟁의 멋진 부분을 부각하고 전쟁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려 하는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전시가 전쟁보다 평화를 말하는 교훈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고 적은 소감들입니다.

1년에 약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그 중 70만 명은 아동과 청소년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적과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를 통한 평화의 이야기여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기념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의 활동

전쟁기념관 다시보기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말하다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을 돌아보며
전쟁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평화의 방식과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시 신청 가능)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의 문제점과 대안 연속 토론회

2차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7월 25일 예정)
3차 : 한국전쟁시 전시성폭력 문제와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9월 중순 예정)

연속기획강좌

-시민의 눈으로 군대를 보다

한국전쟁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전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중순부터 4-5강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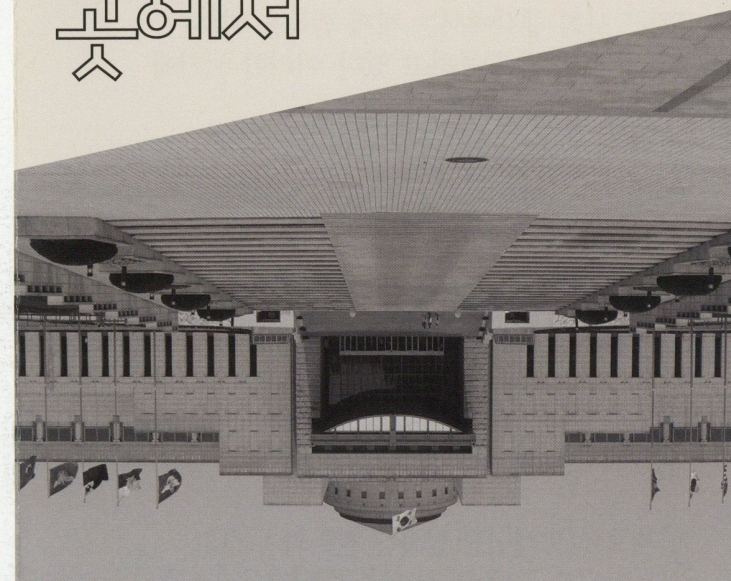


전 화 02)338-0426
홈 페이지 www.militarywatch.or.kr
E-mail watch@militarywatch.or.kr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2-525189
(예금주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제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필연적으로 민간인학살
전시성폭력, 강제동원과 같은 전쟁범죄를 낳는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좌익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쟁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안보의 성역이 되리라 믿는다”

전쟁기념관 건립후원회 창립총회 이상훈 국방부장관 축사에서

87년 민주화 운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요구로 확장되자, 노태우 정권은 국방부 주도 하에
전후세대 안보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실제로 전쟁기념관 전시는 전투와 무기로
가득합니다. 힘을 키워 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는 전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전쟁기념관은 북한이라는
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한국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왜곡과 배제로 나타납니다.



“제주도 4·3 사건 등 공산 좌익들의 끈질긴 선거
방해 책동 속에서도... 한국 최초의
510 민주선거는 실시됐다”

전쟁기념관 전시 영상 '6·25 전쟁'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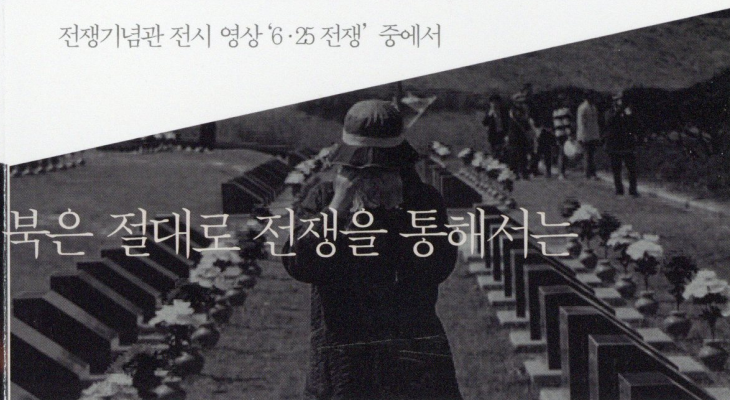
제주4·3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은 제주4·3사건을 여전히
공산좌익들에 의한 방해책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대전 형무소 학살사건,
산청·함양·거창 학살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전쟁기념관은 북한군에 의한 학살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서도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남과 북은 절대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통해서만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배제된 이야기들을 말해야 합니다.